

# 不死 꿈꾸던 49세 시황제 ... 사망원인은 '더위'

### 진시황은 열사병으로 죽었다

하나이창 지음



기원전 221년,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늙지 않고 오래사는 불로장생(不老長生)에 집착했다. 불로초 원정대를 파견하기도 했는데, 구레 서시전 등 지명에 그 흔적이 전해진다. 그렇다면 진시황은 얼마나 장수했을까? 불사(不死)를 꿈꾸던 그의 욕심과 달리 49세였다. 기원전 210년 10월 전국 순시중의 일이었다. 이를 두고 암살과 병사(病死)로 의견이 분분하다.



중국 산시성 진시황릉 병마용갱(秦始皇陵兵馬俑坑)에서 발굴된 청동 전차. 진시황은 전국 순시때 암살을 우려해 밀폐된 마차를 이용, '열사병'에 걸려 목숨을 단축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싱가포르대 의대 부학장을 역임한 소아과의사인 하나이창(何乃強)은 진시황 사인에 대해 '더위를 먹어서' 죽은 것이라고 밝힌다. 당시 진시황이 두껍고 통기성이 낮은 의복을 입었고, 암살을 막기 위해 밀폐된 청동 마차에 탔기 때문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어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을 유발했을 거라는 과학적인 추측근거를 제시한다.

최근 출간된 '진시황은 열사병으로 죽었다'는 그가 중국 황제들의 죽음에 관해 의학적으로 고찰한 의학 역사에세이다. 저자는 역사서를 읽으면서 '고대 황제와 황후가 어떤 병을 앓았는지, 어떻게 사망했는지 병의 원인을 밝히고 싶은 직업병이 발동했다. 그래서 그는 역사적 기록을 근거로 그들이 앓았을 법한 병을 현대의학 서적과 임상경험을 동원하고 고대 의학사적을 뒤적이며 분석했다.

역대 황제들중 3분의 2는 병에 걸려 침상에서 사망했고, 나머지 3분의 1은 암살·독살 등 '자연스럽지 않은 죽음'을 맞았다. 살해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익사하거나, 과로사했다. 황제의 평균수명은 만 38세로, 요즘으로 치면 '고위험 직업군'에 속한다. 그들 역시 당뇨병과 두통, 중풍, 암, 정신병, 유전병 등을 앓았다.

저자는 춘나라 유비는 63살에 이질로, 송나라 태조는 49세에 대상포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다. '병의 별명을 불러 온 게으른 황제'라고 불리는 명나라

만력제는 '수에르만병'으로 인한 척추후만곡 기형이나 '결핵성 척추염'을 앓았을 가능성이 크다. 두통이 심했던 조조는 기존 의견인 뇌종양이 아닌 낙마 후 유증인 '만성 경막하 혈종'일 것으로 추측한다.

황제들은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이상행동도 보였다. 한나라 성제는 흥쳐며 성적 충동을 느끼는 관음증 '번태 황제'로, 주지육림(酒池肉林)을 재현해 음란한 행동을 구경하기도 했다.

질병은 황위 순서를 바꾸기도 했다. 북방에서 남하해 중원에 입성한 만주족

은 천연두에 대한 면역력이 약했다. 4대 황제인 강희제는 천연두에 걸렸으나 병을 이겨내 여러 형을 제치고 8살에 황위에 올라 61년동안 재위하며 공중위생과 예방의학 등에 큰 공헌을 했다.

저자의 황제 질병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레 중국 역사무대를 종횡무진 누비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나아가 조선 왕조실록 기록을 토대로 조선 왕들의 질병사(史)와 역사를 버무린 같은 책을 보고 싶다. <책피·1만6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프리카 칼로, 내 영혼의 일기=멕시코 최고의 여류화가 프리카 칼로의 일기장 전문을 엮은 책.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프리카 칼로의 예술혼과 무의식을 깊이 있게 만나볼 수 있다. 행여 누가 불가 압호를 써 가며 감추어둔 일기장에는 때로는 부유하는 무의식으로,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화로, 손 가는 대로 끄적인 그림으로 그녀의 예술혼이 나타난다. 그런 만큼 프리카 칼로라는 화가를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비엠케이·1만8000원>

▲상드리에= '완득이'와 '우아한 거짓말'의 작가 김려령이 첫 장편소설 '완득이' 이후 8년 동안 써 온 작품들을 엮은 첫 번째 소설집이다. 작품 속 인물들은 삶의 비극과 희극을 모두 뜨겁게 끌어안는 모습으로 울라 61년동안 재위하며 공중위생과 예방의학 등에 큰 공헌을 했다.

<창비·1만2000원>

▲날아라 썩거꾸=2015년 계간 '동리목월'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박숙경 시인의 첫 시집. 유독 작고 시적이고 애뜻한 것들에게 오래 눈길을 멈추는 시인은, 수많은 생의 순간들과 떠도는 이야기들을 건너 꿈에 닿으려고 노력한다. 예민하고 섬세한 감수성과 부드러운 눈빛으로 세상의 '사이'들을 들여다보고, 다시 그것들을 다정한 시의 언어로 빚어 이 시집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준다.

<문학의전당·9000원>



▲수업혁신=서울미술고등학교를 25년 동안 근무하면서 대부분 학생들이 수학과목에 대하여 싫어하고 학업 수준도 낮아서 수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저자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는 수업, 재미있는 수업, 감동이 있고 살아있는 수업을 위해 노력했고, 이러한 노력이 참여 중심의 열정적인 수업으로 바뀌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믿고 있다. 저자의 체험으로 엮은 '교실이 살아나고, 아이들이 깨어나는' 수업 비결들이 담겨 있다.

<에듀팩토리·1만4000원>

▲선언=더 이상 새로운 앱을 구동할 수 없는, 우리 사회 낡은 OS의 교체를 선언한다. 창조력이 가치 창출의 주요 원인이 된 역사의 새로운 단계에서, 돈 중심 운영체제로는 헬조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자는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청년 세대에 새로운 좌표와 그 경로를 제안하고 있다. <윤출판·1만5000원>

### 어린이 책

▲빛방울이 후두둑=2015 불로라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선정작. 폭풍 짙은 여름 장마철에 맞춘, 사이타 같은 그림책이다. 과감한 컬러와 톡톡 그린 그림, 시적 텍스트가 오늘,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굳디터기 없는 글이 굽적한 장맛비를 시원하게 맞아 버린, 어느 운 나쁜 날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

<사계절·1만3500원>

▲최고의 독서 짝꿍=노는 것도 재미있지만 글공부는 더 재미있어 하는 아이. 다산 정약용. 세상의 모든 것이 궁금하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는 아이, 토머스 엘바 에디슨. 두 소년의 이야기는 85년의 시공을 넘어 한 이야기처럼 이어진다. 마치 장거리 달리기를 하면서 서로 바톤을 넘겨주고 받듯이 이어진다.

<좋은꿈·1만원>

▲알미운 내 꼬리=광주출신 양인자 작가의 동화책. 동화야옹다옹 자매 이야기



가 담겨 있다. 언제나 양보만 해야 하는 언니의 입장에서, 마냥 대만해 보이는 언니를 이겨야 하는 동생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볼 기회를 준다.

<파란정원·1만원>

▲블랙리스트=이환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쫓기는 친구를 돕다가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블랙리스트 5단계까지 오르면 머리에 칩을 넣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머리 칩 수술을 받은 아이들은 갑자기 성적이 오르고 앞전해지며 전과 달린 모습을 보인다. 이환은 아이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사하다가 거대한 음모를 알게 된다. 아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한우리문학·9500원>

## 19작가의 묘지명 같은 최후의 작품

### 화가의 마지막 그림

이유리 지음



에른 실레의 마지막 그림은 '죽기 직전의 에르트 실레'다. 스페인 독감에 걸려 뱃속 아이와 함께 생의 끈을 놓아야 하는 젊은 아내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었다. 아내를 묻고 돌아온 지 3일 후, 그 역시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그의 나이 28세였다. 검정 초코로 스케치한 에르트 실레의 표정엔 많은 감정이 담겨 있다.

'세상을 바꾼 미술 작품들' 등 미술 관련 서적을 펴낸 이유리씨의 신작 '화가의 마지막 그림'은 19명 작가들의 '묘지명'과도 같은 '최후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현대 미국인의 쓸쓸한 초상을 담아낸 작가로 유명한 에드워드 호퍼의 마지막 작품은 '두 코메디언'이다. 이제 막 공연

을 끝낸 남녀 코메디언이 객석을 향해 인사를 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은 웬지 몽글하다. 손을 가슴에 얹고 관객에게 경의를 표하는 남자는 에드워드 호퍼 자신이다. 그가 손을 잡고 소개하는 여자 코메디언의 얼굴은 화가이자, 비평가이자, 매니저였으며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의 모델이었던 아내, 조 호퍼다. 평생 살아온 삶이 모두 담긴 듯한 얼굴 표정과 몸짓은 두 사람이 세상에 고하는 마지막 인사 같다.

생의 대부분을 '죽음'과 직면한채 살아온 프리카 칼로의 마지막 작품엔 먹을

직스러운 수박이 가득 담겼다. 작품 제목은 '인생 만세'.

또 스스로 동맥을 끊어 피범벅이 된 채 숨진 마크 로스코의 유작은 핏빛 붉은색이 쏟아져버릴 것 같은 '무제'다.

책은 빈센트 반 고흐의 마지막 작품 '나무 뿌리', 아들과 손자를 잃고 전쟁에 반대하는 작품을 구준히 그려온 케테 콜비치의 '병사를 기다리는 두 여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이중섭의 '돌아오지 않는 강', 한국 최초의 여성화가였던 나혜석의 '해인사 석탑' 등을 소개한다.

그밖에 모딜리아니, 폴 고갱, 장 미셸 바스키아, 잭슨 폴록, 카라바조, 램브란트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서해문집·1만4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외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복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www.솔향기맑은터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참숯가마



24시간 OPEN!!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급금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